 **2018년 최고 화제작, 신작 공세에도 끄떡없다!**

**개봉 2주 연속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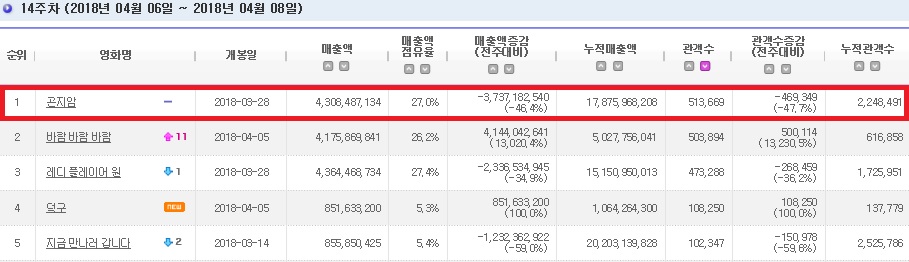
**<장화, 홍련> 이후 15년 만의 흥행 쾌거!**

**개봉 11일째 200만 관객을 돌파하며 역대급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영화 <곤지암>이 개봉 2주 연속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 역대 한국 공포 최고 흥행 왕좌 등극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감독: 정범식 | 출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이승욱, 유제윤 | 제공/배급: ㈜쇼박스 | 제작: ㈜하이브 미디어코프 | 개봉: 2018년 3월 28일]

**흔들림 없는 흥행 독주! <장화, 홍련>의 아성을 뛰어넘을 역작 탄생 조짐!**

**2주 연속 부동의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 개봉 3주차에도 계속되는 장기 흥행 질주!**

****

**[출처: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4월 9일(월) 오전 7시 기준 주말 박스오피스]**

개봉과 동시에 폭발적인 입소문 열풍으로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는 영화 <곤지암>이 2주 연속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를 1위를 기록했다. <컨저링>, <겟아웃> 보다 빠른 속도로 200만을 돌파하며 진기록을 세우고 있는 <곤지암>의 이러한 행보는 불모지라고 여겨졌던 한국 공포 영화가 신작 공세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흥행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또한 <곤지암>은 한국 공포 영화 사상 4번째로 2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이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공포 영화 역대 흥행 1위작인 <장화, 홍련>의 아성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며 그 흥행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03년에 개봉한 <장화, 홍련>은 누적 관객수 3,146,217명(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기준)을 기록하며 역대 한국 공포 영화 흥행 1위에 오른 바 있다. 최근까지도 <장화, 홍련>의 아성을 위협할 만한 작품이 부재했던 한국 공포 영화계에 연일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는 <곤지암>의 존재는 독보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곤지암>의 끊임없는 흥행 세는 극강의 공포 체험을 만끽한 관객들이 전하는 리얼한 관람 후기가 1020세대 관객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며, 광풍에 가까운 입소문 신드롬을 일으킨 덕분이다. 영화를 관람한 관람객들은 **“하도 뒤로 빼면서 봐서 몸 구겨지는 줄”(dlrk\*\*\*\*), “뒤에 여자 소곤거리는 소리에 4D 영환 줄.. 개쫄보 ㅇㅈ?”(leeg\*\*\*\*), “보시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오세요”(zxhw\*\*\*\*), “손톱 깎고 가세요. 귀가 헐어버렸습니다”(dltm\*\*\*\*), “마지막 자존심으로 손으로 눈은 안 가리려고 했는데 본능적으로 손은 눈을 가리고 있었다. 하…”(se4u\*\*\*\*), “영화 끝나고 흉통이 오는 영화”(kiss\*\*\*\*), “영화는 너무 재밌게 봤는데, 우리 집이 402호라 집을 못 들어가겠음”(rabi\*\*\*\*), “별로.. 극장이 더워서 겨드랑이에 땀 좀 난 거랑, 집에서 깜빡하고 불 안 끄고 잤네요. 전 무섭지 않아요”(radj\*\*\*\*)** 등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공포의 실체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던 관객들의 격렬한 반응을 단번에 담아내며 개봉 3주차에도 흥행 가도를 달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2주 연속 주말 전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한 것은 물론, 압도적인 흥행 열기로 <장화, 홍련>이후 15년 만에 한국 호러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곤지암>은 역대급 입소문 광풍 속에 절찬 상영 중이다.**

|  |
| --- |
| **★** **★** **★** **★** **★**  '떡밥' 회수 확실한 新개념 호러  -뉴스1 정유진 기자-  1인칭으로 사실감 끌어올린 공포 체험  -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일반 관객은 물론 해당 장르 마니아 역시 신선하게 즐길 수 있는 작품  -맥스무비 차지수 기자-  한국 공포영화의 가능성을 보고 싶다면 영화 <곤지암>을 보는 것이 좋다  -쿠키뉴스 이준범 기자-  1인칭 체험 공포의 끝판왕. 한국 호러의 새로운 활력  -마이데일리 곽명동 기자-  극한의 ‘공포’ 원한다면 영화 ‘곤지암’과 마주하라  -뉴스토마토 김재범 기자-  "직접 느껴라" 체험 공포 '곤지암', 韓호러물 패러다임 바꾸다  -뉴스핌 장주연 기자-  정범식 감독의 호러 新기원  -헤럴드 POP 안태현 기자-  미치게 무섭다!  한국 호러 역사에 남을 체험 공포의 최고치  -스포츠조선 이승미 기자-  호러 콘텐츠를 향한 정범식 감독의 애정과 연구가 느껴지는 작품  -무비스트 박꽃 기자-  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한 장면들을 통해 흡입력 높은 체험형 공포를 선사한다  -텐아시아 이은진 기자-  은근히 무섭게 ‘한국 호러무비’의 진수 보여주다  -MK 스포츠 안하나 기자-  "'극강 공포' 라이브 호러쇼”  -마이데일리 김나라 기자-  휘몰아치는 공포 장면만으로도 영화표 값이 아깝지 않다  -OSEN 박판석 기자-  호러 장르를 외면했던 젊은 층의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를 곳곳에 채웠다  새로운 한국 공포 장르를 기대하는 관객에게 아주 좋은 선택  -오마이뉴스 이선필 기자-  실제와 판타지를 넘나드는 '新 한국형 호러물' 탄생  -MBN 스타 백융희 기자-  상상 이상의 극강 공포  -TV리포트 김수정 기자-  공포영화의 뻔한 공식 파괴하고 리얼함 살렸다  -스포츠투데이 이소연 기자-  "정말 무섭다"던 소문은 진짜였다  enews24 고수진 기자 |

**Information**

\* 제 목: 곤지암

\* 감 독: 정범식

\* 출 연: 위하준, 박지현, 오아연, 문예원, 박성훈, 이승욱, 유제윤

\* 제공/ 배급: ㈜쇼박스

\* 제 작: ㈜하이브 미디어코프

\* 개 봉: 2018년 3월 28일

\* 등 급: 15세 이상 관람가

**Synopsis**

**공포 체험의 성지 ‘곤지암 정신병원’**

1979년 환자 42명의 집단 자살과 병원장의 실종 이후,

섬뜩한 괴담으로 둘러싸인 곤지암 정신병원으로

공포체험을 떠난 7명의 멤버들

원장실, 집단 치료실, 실험실, 열리지 않는 402호…

괴담의 실체를 담아내기 위해

병원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하던 멤버들에게

상상도 못한 기이하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 하는데…

**가지 말라는 곳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소름 끼치는 ‘곤지암 정신병원’ 의 실체를 체험하라!.**